

광주·전남 희곡계 큰별 한옥근 명예교수 별세

김우진, 차범석으로 이어지는 한국 희곡사의 3세대로 평가 받는 희곡작가 한옥근 조 선대 명예교수가 22일 지방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강진에서 태어난 고(故)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뛰어들어 광주연극협·극단 '향토'·이랑극회 등을 이끌었다.

이후에도 한국극사학회·한국극문학회·한국연극사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연극사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광주 연극의 산증인이자 남도 대표 희곡작가인 고인은 '광주전남연극사'를 비롯 '연극의 이해와 실기' 등을 집필하는 등 연극의 학문적 토대를 닦는데 일조했으며 지역에서 유일하게 희곡 분야 후학을 양성해왔다.

지난 2011년 대한민국 연극계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 '외다리뽀뚜기' '파우스트의 가솔' 등 희곡집 2권과 '희곡의 이해' '연극의 이해' 등 15권이 있다.

빈소는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302호



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9시. 장지는 광주 영락공원이다. 062-670-0035.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김원중 달거리 공연... '고다이바 부인' 이야기

오늘 빛고를 시민문화관

'뽕 만드는 공인-김원중의 달거리' 6월 행사가 24일 오후 7시30분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6월 행사 주제는 '고다이바 부인'(Lady Godiva)으로 11세기 영국 중부지방의 영주 부인인 고다이바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남편을 제지하기 위해 옷을 벗고 거리로 나선 사연을 이야기한다.

이날 행사에서 보헤미안 소울(이상록·유

형민), 느티나무 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 프롤로그의 노래배달(최성식·서민정·박강민)의 공연과 주홍의 샌드아트 메이선과 진시영의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프롤로그의 노래배달에 사연과 신청을 보내고 싶으면 홈페이지(www.kimwonjoog.com)로 하면 된다. 입장료는 무료로 공연 관람 전후 모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보태면 된다. 문의 010-3670-580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18 1인극 전국에 알린다

'애꾸눈 광대' 순회공연 추진-8월엔 제주서 초청 공연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연 1인극 '애꾸눈 광대'가 전국 순회공연 무대에 오른다. 23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애꾸눈 광대'는 오는 8월 1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회 제주4·3평화인권마당극제에 공식 초청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제주 공연을 계기로 전국순회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애꾸눈 광대'는 5·18부상자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지현씨의 자전적 삶에 다룬 5월 유족들의 이야기를 더해 구성된 1인극이다. 극단 '토박이' 신동호 전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지난 5월 말부터 매일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상설공연을 진행 중이다. 문의 062-670-7496. /이보람 boram@kwangju.co.kr



“강진은 마음의 고향... 답사기 보완편 강진청자美 다룰 것”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출간 20주년 강진 찾은 유홍준 교수

“윤한봉, 그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거나 세상을 너무 쉽게 산 사람이다. 광주민주항쟁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수배중 화물선 갑판 밑 의무실 화장실에서 37일간 라면부스럭기로 연명하며 드디어 미국밀항에 성공한 분이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

합수 윤한봉 열사의 6주기를 맞아 유홍준 명지대 교수가 22~23일 윤 열사의 고향이자 남도답사 일번지인 강진을 찾았다.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미술사가 유홍준 선생과 함께하는 2013 민주주의 역사문화답사-합수 윤한봉의 고향, 청자의 고향 강진’ 1박2일 프로그램을 이끈 유 교수는 22일 서울과 경기, 광주, 전주 등에서 모인 참가자 120여 명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윤 열사 추모식에 참가한 뒤 강진 칠량 생가와 칠량 초등학교, 정수사, 청자박물관을 둘러봤다.

친구 윤한봉 열사 6주기 맞아 생가 방문 '역사문화답사'

'천하제일 고려 비색, 고려청자의 발생과 아름다움' 강연

이후 유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0주년을 맞아 강진아트홀에서 '천하제일 고려 비색, 고려청자의 발생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1993년 출간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권 강진편에 소개된 '윤한봉의 눈물 한 방울' 부분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1987년 미국에서 윤 열사의 요청으로 간추린 한국미술사를 슬라이드로 강의할 당시 윤 열사가 "고맙네, 자네 덕에 내가 미국으로 밀항은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방문을 보았네"라고 말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유 교수는 윤 열사를 '벗'으로 부르며, "강진은 친구의 고향이자 내 마음의 고향이며, 윤한봉과 강진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고비마다 큰 힘이 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미술사를 공부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공부하는 게 미술사가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걸

음도 바빠졌다"며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강진에서 시작했다. 강진은 청자의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 책에는 쓰지 않아서 언젠가 보완편을 쓰면 강진의 청자를 쓸 예정"이라고 20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묘한 비색청자의 발달과정을 소개하면서 강진 청자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다. 유 교수가 꼽는 고려청자의 매력은 '빛깔'과 '형태', '문양'이었다. 청자 공동이의 매끈한 곡선과 다양한 형태, 단아한 문양이 고려청자의 미(美)를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자는 태토(胎土)에 있는 철분이 산화하면서 그 빛깔을 내는데, 초기 청자들은 황색빛깔을 보이다가 기술

이 발달하면서 차츰 비색을 찾아가게 됐다"며 "강진 사당리 가마에서 고려청자가 완성되면서 중국 북송 시대 '여요청자'에 버금가는 청자가 됐다. 그것이 고려를 빛내줬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날 '해무리굽 청자', '청자 연꽃장식 주전자', '연꽃 사자향로', '청자 매병' 등 다양한 형태의 청자 하나하나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한국 예술품이 세계에 나갔을 때 청자만큼은 최고로 꼽힌다"며 "고려청자의 기품과 빛깔은 정치, 문화, 인문적으로 성장해야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친 유 교수는 역사문화답사 참가자들과 주작산 휴양원에서 하루를 보낸 뒤, 23일 다산초당, 백련사, 무위사, 월남사지 등을 둘러보고 서울로 향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박형호 상임이사는 "합수 선생 추모 6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역사



유홍준 교수가 22일 강진아트홀에서 '천하제일 고려 비색, 고려청자의 발생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윤한봉 선생 추모일에 맞춰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답사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페스티벌 오! 광주' 문화갈증 풀었지만 신선함 없었다

공연 마무리... 초청작 관람객수 줄어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2013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 축제'가 3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 행사는 지역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광주에서 이미 선보였던 타지역 작품들이 초청돼 신선함을 주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브랜드공연 축제는 지난 5월16일 광주시립무용단의 '명성황후'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I was here'까지 12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 올 브랜드공연축제는 7개 공식 참여작을 포함, 5개 시립예술단이 참가해 총 1만2000여명의 관객을 끌어 모았다.

타지역 공연인 '비밥', '아리랑파티', '한여름밤의 꿈'과 극단 푸른연극마을, 김미선무용단,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타악그룹 얼수 등 지역 예술단체들의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올 브랜드공연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견줘볼 때 '외화내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작품 5개를 '축제'로 묶어 형식적인 숫자만 늘렸지 실제적으로 작품 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재단에서 집계한 관람객 수 역시 시립예술단을 제외한 7개 공식 초청작은 5500여명에 불과해 2011년 7200여명, 2012년 9500여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광주시 브랜드 작품을 따로 제작하지 않은데다 타지역 공연 역시 기존에 광주에서 공연된 적이 있어 신선함도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지역 공연계 한 전문가는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해 더 많은 작품을 올릴 수 없었다는 핑계보다는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과 함께 작품 선구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보람 boram@



'한여름밤의 꿈'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고품격 웨딩의 메카

신양파크호텔!!

Shin Yang Cool Wedding

그 누구보다 특별한 당신, 영원히 기억될 웨딩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특별할인

7~8월 웨딩 확정시

뷔페 ₩ 33,000 ~
스테이크 ₩ 38,500 ~

“신양의 웨딩 인연은 평생을 회원으로 이어갑니다”

- 신양 헤니문 카드 특전 -

-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날 3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 휘트니스 사우나 이용시 40% DC · 제과 전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